03 장마 윤흥길

대치동 날개

"불쌍헌 것……."

6.25 전쟁에 죽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나'는 1인칭 화자로서 6.25 전쟁 때 외삼촌은 국군, 삼촌은 빨치산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상황에 놓인 집안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어린아이이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놓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성장소설적 측면으로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일 수도 있다.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나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죽은 외삼촌의 상황과 할머니에게 미움을 받은 상황을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믿을 수 없는 화자의 모습이다.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 소수간이나 줄곧 울안 적과 맞서는 맨 앞줄

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서양 과자 (당시에는 몹시 귀한 것)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일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할머니의 참혹한 처지를 1인칭 관찰자 시선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뒤 차차 아들의 부재를 실감하는 모습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자식의 죽음을 알았던 그 순간 강한 모습

서술자의 나의 시각에서 본 외할머니 상태

당시 빨치산을 소탕하려는 작전을 짠 남한 군인과 경찰들은 빨치산을 색출하기 위해, 빨치산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그가 집에 다녀왔었는지 따위를 질문하러 다녔다. 어른이었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텐데, '나'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형사가 준 양과자에 혹해 진실을 실토해버리고 말았다. 할머니는 당연히 손자인 나를 질책하고 근신을 명령한 것이다.

어머니와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간의 불화였다. 각자의 모성애로부터 생긴 갈등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들고 처음에 할머니(친가)는 외할머니네(외가)를 몹시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 반겼다. 이를 확장시키면 우리 민족은 이념 대립이 없을 때 평화로운 공동체였음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 있다.

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이념 대립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 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삼촌은 북한군에 가담함 외삼촌은 남한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가담함 할머니 입장에서는 국군이 강해져, 북한군을 죽일까 걱정이고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끝까지, 국군을 죽일까 걱정인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
두 분 할머니의 갈등을 조장한 요소
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
에 제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개나 돼지를 도축했던 사람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고백이 외할머니 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행동은 자신의 아들의 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
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비탄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웃새에 숨은 뿔갱이 마자 다 씰어 가그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을 잃은 참혹한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
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뒤에 나오는 숫양으로 암

"저 늙다리 예펜네가 뒤질라고 환장혔댜?"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독한 저주가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집인 종 알고 저 지랄이랴,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웬수로 갚는다드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같이 살게 해준 은혜를 잊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외할머니에 대한 섭섭한 심정

허는 말이고만. 올디 갈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혀서 들어앉혀 농게로 인자는 아도 으런도 몰라보고 갖인
(올데 갈데 없는 신세가 많이 불쌍해서 (집에) 들어앉혀 놓으니까 이제는 아주 어른도 몰라보고 갖은)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시런 맘을 먹으면은 벱대로 거그한티 날베락
(개도치를 씨부리는구나!!)
상상밖의 말이나 행동 따위로 거드름을 피우며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일

이 내리는 벱여."

당장 메어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누르고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어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반푼도
전사한 외삼촌 빨치산이 된 삼촌 말도 안되는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러고 자석이
소리는 1도 하지 말아줘

부모보담 먼처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었기 땜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어
할머니가 이렇게 외할머니를 상대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외삼촌의 죽음이 자신 아들 때문이 아니라는 합리

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허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허고 마잘
화를 애써 하고 싶어서이다.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줄에 앉어 있음시나 조께 부끄런 종도 알어야지."
"나이가 저만큼 60대에 이르렀으면 조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어서 아덜놈 먼첨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여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그래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아들이 죽었다만, 그러는 너는 아들이 왜이렇게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잔말하니? 사람 죽이고 다니더라?"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으 예펜네 말하는 것 점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혔능개비여.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쩌간디
그려?"

"생각혀 보면 알 것이구만."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분디……."

"고만덜 혀둬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 일이 생겨야만 쇡이 시연헐 티지만 순철이 갸는 쏘내기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아!!!
새도 요리조리 뚫고 댕길 아여."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윤흥길, 「장마」

➢ 제재 개관

이 작품은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6·25 전쟁을 겪으며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참전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갈등하게 되지만, 할머니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이들의 갈등은 용서와 화해로 해소된다.

주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참상의 극복

◈ 전체 줄거리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시골의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할머니네와 같이 살게 된다. '나'(김동만)의 삼촌은 빨치산이 되어 산속 생활을 하고, 국군 소위인 외삼촌은 소대장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어느 날 외할머니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후부터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으로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는 졸도를 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데,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말을 붙이며 위로하고 동네 아낙의 말에 따라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내보낸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다.

➢ [제재 개관]

※ 다음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전쟁의 와중에 빚어진 한 가족의 불행과 그 극복을 다룬 작품이다. ..... [O / X]

2 유년기의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시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우리 민족 전쟁의 상처를 깊이 드러낸다. [O / X]

3 제목 '장마'는 할머니의 깊고 뜨겁게 흐르는 모성애를 상징한다. ..... [O / X]

4 이념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만의 시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O / X]

5 전쟁의 이야기를 후일담처럼 하고 있으므로 [①전후소설 / ②모더니즘 소설]이고 나는 사건이 끝난 후에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③성장소설 / ④세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6 분단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치환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다. ..... [O / X]

7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낸다. ..... [O / X]

8 의좋았던 할머니들끼리 갈등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념'이 아니지만, 민족 공동체가 이념 때문에 갈등했던 시대적 비극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O / X]

➢ [핵심 내용]

9 할머니는 '나'가 삼촌을 밀고하기 위해 형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고 있다. ..... [O / X]

10 어린 '나'는 현재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 [O / X]

11 '나'는 근신을 명령한 할머니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아버지 모두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자괴감에 괴로움을 느낀다. ..... [O / X]

12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었을 때 외할머니는 자신의 슬픔보다 어머니와 이모의 슬픔을 치유하느라 더 고역을 치렀다. ..... [O / X]

13 처음에 외할머니네가 우리 할머니의 집을 찾았을 때에는 둘 사이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 [O / X]

14 할머니는 '나'가 평소에 삼촌에 대해 서운했던 감정을 형사에게 정보를 주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여기고 있다. [O / X]

15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불화가 시작된 것은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한 직후였다. ..... [O / X]

16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아들의 정치적 노선의 차이로 인해 그들의 이념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 [O / X]

➢ [표현상의 특징]

17 계절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대 문제를 암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O / X]

18 어린 아이를 서술자로 삼아 사건의 다각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O / X]

19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 [O / X]

20 보여 주기와 말해 주기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O / X]

21 서술자인 나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에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 .....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불쌍헌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22 전쟁터에서 아들이 전사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현실에 외할머니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 [O / X]

23 서술자인 나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의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다. ..... [O / X]

24 외할머니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직후 쓰러져 강한 모습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 [O / X]

[B]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좋게 지내 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

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웃새에 숨은 뿔갱이 마자 다 씰어 가그라! 나무 틈새기에 엎딘 뿔갱이 숯뎅이같이 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늙다리 예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혔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 집인 종 알고 저 지랄이랴,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웬수로 갚는다드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디 갈 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혀서 들어앉혀 농게로 인자는 아도 으런도 몰라보고 갖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시런 맘을 먹으며는 댑대로 거그한티 날베락이 내리는 벱여."

당장 메어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25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불화의 계기는 '나'가 양과자를 얻어 먹은 사건이었다. ····· [O / X]

26 서술자 나는 중심인물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견해에 부정적 입장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O / X]

27 할머니와 외할머니 불화의 궁극적 이유는 손자인 '나'이다. ····· [O / X]

28 국군인 외할머니의 아들이 죽은 원통함 때문에 외할머니는 나의 삼촌이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O / X]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어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러고 자석이 부모보담 먼처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었기 땜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어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허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허고 마잘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 줄에 앉어 있음시나 조께 부끄런 종도 알어야지."

[C]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어서 아덜놈 먼첨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으 예펜네 말허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혔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쩌간디그려?"

"생각혀 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 분디……."

"고만덜 혀 둬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 일이 생겨야만 쇡이 시연헐 티지만 순철이 갸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댕길 아여."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 윤흥길, <장마>

29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베푼 은혜가 원수로 돌아왔다고 분개하며 자기 아들에 생환을 확신하고 있다. [O / X]

30 할머니는 사돈댁 아들이 평상시 행실이 좋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무속신앙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 [O / X]

31 외할머니는 아들이 군인들에게 총질을 하는 인민군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잘못 키운 거라고 응대하고 있다. [O / X]

32 할머니는 아들의 날쌘 모습을 근거로 아들이 죽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O / X]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로, 적절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시오.

33 할머니는 '나'가 형사에게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하였다. [O / X]

34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자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 [O / X]

35 외할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 삼촌이 속한 빨치산을 저주하였다. [O / X]

➢ [객관식] 문제

36 <보기>를 참고하여, [A]~[C]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차적인 인물이 주동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나'라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주동 인물의 이야기가 소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은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 시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부차적 인물로서 주동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동 인물을 객관화하기 때문에, 주동 인물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객관성이 높다.

① [A]의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멈 하나'와 같은 표현을 통해 주동 인물인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객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② [A]는 관찰자인 '나'의 눈에 비친 '외할머니'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주동 인물의 처지에 대한 정보를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에 비해 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B]의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차적인 인물인 '나'에 대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도를 분석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자적 논평을 시도하고 있다.

④ [B]는 '나'가 주동 인물인 할머니, 외할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⑤ [C]는 주동 인물인 할머니, 외할머니와 거리가 가까워진 '나'가 주동 인물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자신의 시점에 따라 전달함으로써 구체적 갈등 양상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O 해설 작품 전체에서는 화해를 한다는데 주목하면 된다.

2) 정답 X 해설 유년기 어린 아이인 나는 직접적 비판을 하지 않는다.

3) 정답 X 해설 '장마'는 뜨겁고 깊은 모성애가 아니라, 6.25라는 전쟁을 상징한다.

4) 정답 O 해설 어린 아이가 깊게 알기 어려운 이념 문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5) 정답 ① ③ 해설 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작가가 과거 시제로 들려주는 소설은 전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6) 정답 O 해설 소설 자체 내의 의미보다 작품 바깥의 시대상이 중요한 문학작품 감상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7) 정답 O 해설 할머니들이 쓰는 방언은 실제 있었던 일같은 느낌을 주고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8) 정답 O 해설 할머니들이 직접적으로 이념이 달라 싸운 것은 아니고, 그들의 모성애적 대상들의 이념 대립 때문이었다.

9) 정답 X 해설 할머니는 내가 밀고하러 형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솔한 나의 행동이 아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10) 정답 X 해설 나는 어린 아이지만 집안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며 외할머니가 슬픈 상태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11) 정답 X 해설 나에게 근신을 명령한 것은 아버지고 용서의 권한을 가진 것이 할머니이다.

12) 정답 X 해설 본문에 의하면 어머니와 이모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했다.

13) 정답 O

14) 정답 X 해설 할머니가 평소 내가 삼촌에게 가졌던 서운함을 형사에게 표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5) 정답 X 해설 외삼촌이 입대한 직후에도 크게 갈등은 없었다고 했다.

16) 정답 X 해설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념 갈등은 직접적으로 없다.

17) 정답 O 해설 장마는 여름철에 눅눅함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적 소재이다.

18) 정답 X 해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피거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19) 정답 X

20) 정답 O 해설 나의 심리를 드러낼 때는 '직접 제시', 외삼촌이 전사했을 때 슬퍼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간접 제시'이다.

21) 정답 O 해설 어린 아이는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22) 정답 X 해설 외삼촌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3) 정답 O 해설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24) 정답 X 해설 외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점점 아들의 죽음을 실감하고 상심한 모습을 보였다.

25) 정답 O 해설 내가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때문에 할머니가 분노했는데 외할머니가 은근히 나를 감싸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26) 정답 X 해설 나는 두 할머니의 언행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27) 정답 X 해설 할머니들의 갈등의 궁극적 이유는 아들들이다.

28) 정답 X 해설 외할머니가 아들이 죽었어도 사돈 청년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29) 정답 O 해설 적어도 겉으로 할머니는 아들의 생환을 확신하고 있다.

30) 정답 X 해설 모든 것은 운명대로 간다는 무속신앙을 믿고 있긴 하지만 평소 평실이 사나워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없다.

31) 정답 O 해설 외할머니는 사돈 청년이 나쁜 이념의 무리에 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잘못 키운 거라고 생각한다.

32) 정답 O 해설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33) 정답 O 해설 이 글에 제시된 '나'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형사에게 양과자를 얻어먹은 뒤로 아버지로부터 근신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자신을 용서할 권한이 할머니에게 있다고 하였다. 또 할머니

의 말에 따르면, '나'는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백정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할머니는 '나'가 형사에게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정답 X 해설 이 글에서,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사라지고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였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자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5) 정답 O 해설 이 글을 통해,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이튿날 외할머니가 건지산 쪽으로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음을 알 수 있다.

36) 정답 ④ 해설 ① 이 글에서 외할머니를 언급하며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멈 하나'라고 표현한 것은 할머니가 불쌍하고 초라하다는 '나'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 시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부차적 인물로서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에 비해 객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③ [B]의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이라는 어구는, 이 어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이라는 표현은 내용 전달의 객관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을 시도하는 부분이 아니다. ⑤ [C]에서 서술자인 '나'는 주동 인물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여 주기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C]는 서술자인 '나'와 주동 인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동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